

# 순창 두릅 · 꾸지뽕 단체표창 등록

### 지역의 차별성 · 품질의 우수성 · 법인 구성의 적정성 등 심사 후 최종 등록

순창 두릅과 순창 꾸지뽕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창 등록에 성공해 향후 순창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2014년 특허청에 출원한 순창두릅 및 순창꾸지뽕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창 등록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근 최종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창제도는 상품의 명성·품질 등이 해당지역의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상표권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표창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순창 두릅과 순창 꾸지뽕은 순창두릅영농조합법인과 순창군꾸지뽕영농조합법인이 등록에 성공했다.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

으로 지역의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법인 구성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심사해 최종 등록하게 된다.

순창 두릅과 순창 꾸지뽕은 우수한 품질과 독특한 맛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었고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다.

두릅은 올해 240ha에서 재배됐으며 전국적으로 240톤 정도의 물량이 유통되고 있다. 꾸지뽕은 60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고행지 특성으로 특히 약리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창 등록으로 순창군 및 해당 법인 외에 순창 두릅 및 꾸지뽕 상표를 쓸 경우 형사상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받고 민사상 침해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등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가입국에서 상표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되어 FTA 등 국제화 시대에 순창 두릅 및 꾸지뽕 브랜드 보호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산물에 대한 권리화를 통해 상품 품질의 보호에 따른 인지도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순창 특산품을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군 관계자는 “순창 두릅과 꾸지뽕이 지리적표시 단체 표창에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농특산물이 지리적표시 단체 표창 등록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이미 순창 고추장이 2007년 지리적 표시 단체표창제도에 등록되어 전국적 명성을 얻는데 일조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경찰, 체감안전도 조사 도내 '1위'

### 범죄 · 교통사고 · 법질서 준수도 등 안전도 측정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는 2016 하반기 경찰청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순창군민 대상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범죄 · 교통사고 · 법질서 준수도 및 전반적 안전도에 대해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를 측정

하였다.

특히 순창경찰은 2월과 6월에 사전 자체 설문조사 실시로 지역치안 방향 설정 및 주민의 소리(VOC)를 적극 수렴하여 해결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찰 활동에 치안력을 집중하는 등 지속적인 주민 소통형 치안활동으로 도내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규운 순창경찰서장은 “주민 소통형 치안활동을 기반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활동과 여성안전, 보행자 교통안전 등 주민 불안요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체감안전도 향상에 큰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순창경찰은 주민과의 일상소통 강화로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순창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규운 순창경찰서장은 “주민 소통형 치안활동을 기반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활동과 여성안전, 보행자 교통안전 등 주민 불안요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체감안전도 향상에 큰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순창경찰은 주민과의 일상소통 강화로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순창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실시

남원시는 장애인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을 빌려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 주는 사업

이다. 대여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성년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 가구당 1회 한정하여 대여한다.

용자조건은 무보증 대출이 가구당 1,200만원 이하(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시설 부착시 1,500만

원 이내), 보증 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5,000만원 이하 한도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고정금리 최대 연 3%가 적용된다.

대여신청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반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 성남시 야탑1동-신덕면, 자매 결연 방문 상호교류장 마련

### 절임배추 등 농산물 판매 협조

성남시 야탑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진종성) 30여명은 20일 자매 결연을 맺은 신덕면을 찾아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덕면을 찾은 야탑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신덕면 자치위원회(위원장 최종연) 회원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절임배추 등 생산된 농산물 판매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사선대 관광지 및 옥정호 탐방 등을 통해 군의 유명 관광명소와 청정자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



다. 최종연 위원장은 “신덕면과 야탑1동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 상호 협력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군, 해안저지대 침수 피해 예방

### 뉴스꾼 대상 수위정보 전달 취약지역 통제 실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올해 해수면 최대 상승기간인 지난 15일부터 20일 까지 해안저지대 침수 피해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군은 지난 18일 최고수위(7m19cm)가 예보되어 사전에 해안저지대 및 도로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

고 취약지역 3개소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섰다.

이을러 해수면 최고수위 정보를 주민들에게 재난문자서비스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공무원, 경찰, 자율방재단 등은 현장에

서 캠페인, 뉴스꾼 대상으로 수위정보를 전달하고 취약지역 통제를 실시했다.

대조기 상황을 총괄한 박우정 군수는 “해마다 재난으로 많은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만큼 사후 복구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라며 “이를 위해 평소 안전점검과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각종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 향교, 전통놀이 체험 '인기'

### 평일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사라져 가는 전통놀이가 순창 향교에서 현대적인 맛과 흥을 담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 콘텐츠로 되살아났다.

군은 지난달 부터 순창향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6년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은 산업화로 사라져 가는 전통놀이와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놀이를 현대적인 재미를 가미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순창읍 교성마을에 위치한 순창향교 명륜당 앞 마당에서 진행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평일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래놀이 지도사의 설명과 함께 체험이 진행되고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2시 두차례 2시간에 걸쳐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근 향교에서 진행되는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이 알려지면서 초등학생과 유치원 체험학습으로 인기를 끌면서 체험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한편 순창향교는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도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의는 순창향교 전화 063-652-0649번으로 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전국 지진대피 훈련 실시

제403차 민방위의날 전국 지진대피 훈련이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분간 실시되었다. 전국을 대상으로 민방위 대원, 주민,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민방위훈련은 전국적인 지진상황을 가정하여 재난위험경보 발령에 따른 '지진대피훈련'으로 치러졌다.

이번 훈련은 2시에 훈련지진경보가 발령되며, 시민들은 그 즉시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몸을 숨기고, 이후 훈련 지진경보가 끝나면 훈련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건물 계단으로 이동해

바깥으로 빠져 나와 인근 공원이나 광장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대피 이후 대피장소에서 국민행동요령 교육이 진행되었고, 차량들은 지진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 통제했으며, 운행중인 차량은 도로우측 갭길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다.

남원시는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지진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당황해 적절한 대응판단이 어려운 만큼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총평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군, 전북권 드림스타트 멘토·멘티 워크숍

고창군은(군수 박우정)에서 도내 시·군 간 우수사례와 정보공유를 위한 '전북권 드림스타트 멘토·멘티 워크숍'이 개최됐다.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석정온천지구 내 세미나실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된 '전북권 드림스타트 멘토·멘티 워크숍'은 전북도가 주최하고 고창군이 주관했다.

워크숍은 전북도와 14개 시·군 드림스타트 담당공무원, 아동통합서비스전문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사례 관리 등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기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관주 강사의 '드림스타트사업과 협력네트워크' 특강과 아이원비전교육원 신장철 대표의 '조직을 위한 활성화 전략과 기술'을 주제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다.

또한, 올해 전북권 멘토지역으로 선정된 고창군의 드림스타트 사업 소개와 우수사례 관리 발표를 통해 시·

군간 정보공유와 고창군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 고인돌박물관, 상하농원, 미당사문학관 등 문화유적지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2011년과 2012년 정부의 우수기관 표창과 2012년, 2016년 전북권 멘토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도내에서 드림스타트 추진 우수 지자체로 주목받고 있다.

김상호 고창군부군수는 “워크숍을 통해 시·군간 드림스타트 우수사례와 정보를 공유하여 아동복지 통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은 저소득 아동들의 안정적인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국립돌리사

# 임실군, 통합만족도 조사 실시

임실군은 군정 성과관리를 위해 2016년 임실군 통합만족도 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군민만족도, 주요사업만족도, 정책고객만족, 민원이용자만족, 특정고객만족, 조직내부협력도, 조직 내부 만족도를 중심으로 문자 발송 후 ARS를 통해 8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한 지난 17일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1일은 정책체감도, 민원이용만족도, 특정고객만족도 순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참여할수록 설문조사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통합만족도 조사는 군민이 체감하는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해 고객이 원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인도정비 사업 지속 추진

남원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도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에 따르면 인도정비 사업은 2007년도부터 22개소 7.64km에 330여원을 투자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156여원을 투자하여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13개소 4.4km를 완료하여 이용중에 있으며, 도동동 롯데마트 앞에서 남원의료원 입구까지 0.6km 구간은 2016년 실시계획 중에 있어 2017년 공사가 완료되면 춘향골체육공원, 남원의료원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로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시가지 인도가 없는 도로구간에 지속적으로 인도정비 사업을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 만전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경찰, 수확기 인삼 지키기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는 내고장 맞춤형 절도예방으로 한창 수확기에 접어들어 인삼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순창군 북쪽면지역은 인삼재배에 적합한 토양과 기후를 갖추고 있어 순창군 전체 인삼재배 면적의 약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삼을 지키기에 연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관내 지역 특성을 이용한 순찰노선을 지정하여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위력순찰과 목격문을 실시하는 한편, 인삼경작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순찰노선 지정하는 등 인삼절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인삼 경작자들에게 재배지 주변에 대한 가정용 CCTV설치 등의 홍보 및 야간시간대에는 인삼밭 진입로에 로드블로킹을 실시하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아울러 설치토록 지속 홍보중에 있다.

변용상 북쪽파출소장은 “인삼 수확철을 맞아 인삼절도가 단 한건도 발생치 않는 선제적 예방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다문화센터, 착한 바자회 개최

임실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경순)는 20일 '제2회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착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열린 제1회 바자회가 성황을 이룬 것에 힘입어 결혼이주여성의 향수병을 극복하고 문화와 풍습에 적응해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바자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공동주거장에서 다문화가정 및 지역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으며, 아이들 옷, 성인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은 다문화가정 돌기에 쓰일 예정이다.

김경순 센터장은 “이주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실천할 것”이라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